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⑥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1)-
법당의 시대적 부침(浮沈)

외형적인 불사는 무의미한 것

〈佛事〉

선종은 '불립문자 · 교외별전 · 직지인심 · 견성성불'(不立文字 敎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4자성어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경전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고, 불상에 대한 신앙과 의존도도 높지 않았다. 또 달마와 양무제 사이에 오고간 '무공덕(無功德)의 문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탑과 불상을 조성하고 절을 짓는 등 외형적인 불사(佛事)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경전이나 문자는 껍데기라고 생각했다. 경전은 붓다가 교화적인 차원에서 남긴 방편적인 말씀에 불과하고, 선(禪)이야말로 붓다가 전해 준 핵심 · 진수(眞髓=佛心)로서 경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敎外別傳)고 말했다. 그들은 껍데기(경전)가 아닌 진수(마음)를 탐구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선불교는 교학이나 경전, 지성(知性), 권위, 관념, 형상을 부정했다. 그 속에 묻혀서는 사물의 진실한 속내(진실상)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형상과 권위, 지식과 관념을 타파하고 올바른 시각으로 사물을 직시했을 때, 비로소 참된 사물의 실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수행승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수행승의 진지한 질문에 그는 "부처란 다름 아닌 마른 똥막대기야"라고 대답했다. 이 파격적인 선문답은 삽시간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계를 강타했다. 따지고 보면 이 역시 권위에 대한 부정으로서 허상과 진실 사이에 쳐져 있는 장막을 걷어치웠을 때 비로소 실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唐) 중기 이후 선불교가 일취월장으로 흥기, 발전함에 따라 중국불교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예가 선종사원의 가람 배치와 구성이었다. 물론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은 전통사원의 가람에서 태동된 것이지만, 전통사찰과는 현격하게 다른 것으로서 가히 파격적이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먼저 기존사원의 가람 배치와 구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당 중기 선종사찰이 출현하기 전까지 종래 전통사원의 가람구성은 탑과 불전(佛殿)이 중심이었다. 앞에는 탑(塔)이, 뒤에는 불당(대웅전)이 세워져 있는 이른바 전탑후당(前塔後堂)의 구도로서, 율종사원의 가람도(伽藍圖)인 <계당도경(戒堂圖經)>과 낙양의 가람을 정리한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앞에는 산문(山門)이, 뒤에는 강당이, 좌우로는 전각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가람 구성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찰의 가람 배치와도 같다.

그런데 선불교가 율종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설계로 선종사원을 세우던 시기, 즉 백장회해(720-814)에 의해 선종사원이 창건되던 초창기에는 탑과 불전(대웅전)이 중심이 아니라 법당(설법당, 강당)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탑과 불전은 가람 구성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다. 대신 법당(설법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당 좌우로는 선당(禪堂, 승당)과 고원(庫院, 주방)이, 뒤로는 주지의 거실인 방장실이 세워져 있다.

전통사원과 선종사원(총림)의 가람배치에서 현격하게 다른 점은 불전이 서 있는 자리에 법당이 서 있다는 것이다. 불전을 세우지 않고(不立佛殿) 설법하는 공간인 법당을 세운 것인데(唯樹法堂), 역할에서 불전보다는 법당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불상을 모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전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이것이 바로 선종사원의 최대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선의 본의(本義)와 목적, 취지를 가람배치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으로 기존의 불교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 사상적 바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금강경>은 공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선종의 제6대 조사인 혜능선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이 경전은 선불교의 근본경전이 되었다. <금강경>은 일체개공(一切皆空)을 역설하므로 유형은 물론 무형의 의식도 인정될 수 없다. 제5장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이치에 의거하여 제대로 보라)'에서는 여래의 참 모습은 신상(身相, 형상)에 있지 않다고 선언한다. 신상(身相)이나 허상, 형상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상에서 여래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불가합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에서는 여래의 본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신상(형상)은 곧 진정한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상(身相)이나 형상 등은 허상일 뿐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선불교의 가람 구성에서 불전을 세우지 않았던 사상적 바탕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확실한 경전적인 전거나 사상적인 바탕 없이 불전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법당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법(法)을 중시한 것이지 형상이나 신상(身相) 또는 32상(三十二相) 등을 중시한 것이 아니었다.

김동리의 단편소설 '등신불'은 단하소불(丹霞燒佛)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단하천연(739-824) 선사가 날씨가 추워지자 불전에 있는 목불을 쪼개어 아궁이에 불을 땠다는 거의 실화에 가까운 고사로서, <전등록>과 <송고승전> 그리고 <조당집>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처음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소설이지만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다. 사실 이것은 단하천연선사가 혜림사의 불승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보여준 의도된 행동으로서, 목불이나 등신불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사상의 여실함(유형/목불-무형)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 이야기의 사상적 바탕도 앞의 <금강경> 구절에 있다.

지금은 그 원전의 편린조차 전해 오지 않지만 <백장청규>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선원청규>(자각종색 편찬)의 '백장규승송'에는 불전을 세우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전(佛殿)을 세우지 않고 오직 법당만 세우는 것은 불조(佛祖)로부터 친히 법을 전수받은 당대(當代)의 주지(방장)를 높이기(존숭) 위해서이다(不立佛殿, 唯?法堂者, 表佛祖親受當代爲尊也)."

"산문에 들어서니 불전이 없네./ 법당에는 불상이 없네./ 이것은 곧 심인(心印)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알지어다. 이가 곧 법왕임을(入門無佛殿, 陞座有虛堂, 卽此傳心印, 當知是法王)."

당대(當代)의 주지(방장)는 친히 불조(佛祖)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살아 있는 부처이므로, 그를 높이고 존숭하기 위해서 설법장인 법당을 세우고 불전(佛殿)은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조로부터 직접 법을 부촉 받은 현신불이 부처를 대신하여 법을 설하고, 수행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굳이 등신불을 모시는 불전을 두어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수행자를 깨닫게 하는 역할 면에서 볼 때 불전은 아무런 유용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반면 법당은 설법을 통해서 수행자를 깨닫게 하므로 더 중요했던 것이다. 기존사찰을 선종사찰로 바꿀 때는 불전을 헐어버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주지 곧 방장을 '불조의 심인을 전수받은 법왕(法王)'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왕이 엄연히 법당에서 지혜의 가르침을 펴고 있는데, 등신불이나 불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말하자면 선종은 가람배치 등에도 선의 정신을 투영한 것이다.

선종가람에서 불전을 두지 않고 법당만 두었던 원칙은 당말까지는 흔들림 없이 존속되었다. 그러나 송대에 이르러 선종이 중국불교계를 대표하게 되면서, 불교와 국가와의 관계, 선종사원의 사회적 역할과 종교적 기능 등이 대두되면서, 선종 특색의 '불립불전(不立佛殿) 유수법당(唯樹法堂)'의 원칙은 점점 흐려져서 불전이 들어서게 된다.

송초(宋初, 북송) 무렵 장로종색(1100년대 활동) 선사가 1103년에 편찬한 <선원청규> 9권 끝에는 불승이 되고자 갓 입문한 행자들을 훈계하는 '훈동행(訓童行)' 장이 있다. 거기에는 "매일 만참(晩參, 저녁 법문)에는 불전 앞에서 부처님께 예배하라"는 한마디가 있는데, 이때 쯤 서서히 선종총림에 불전이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전 예배'의 문구가 행자들을 가르치는 '훈동행'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불전 예배는 아직 선당의 대중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듯하며, 그 규모와 역할, 기능도 크지 않아서 신자들을 위한 전각의 하나 정도로 취급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북송을 지나 남송 때(1127년 이후)에 와서는 국가불교적 성격을 띤 5산10찰(五山十刹) 제도가 생기면서 가람 구성은 법당 중심에서 점점 불전 중심으로 이동한다. 5산10찰 제도는 송나라가 금나라에 충격적인 일격을 당한 뒤 수도를 개봉에서 임안(지금의 항주)으로 옮긴 뒤, 내심 국가 수호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 총독부가 만든 본산제도와 같은 것으로서 5산이 전국 사원을 나누어 통괄했다. 일본의 가마쿠라(鎌倉) 5산과 교토(京都) 5산도 남송 5산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남송 5산은 항주 경산사와 영은사, 영파 천동사, 항주 정자사, 영파 아육왕사인데, 5산 가운데 두 번째인 항주 영은사 가람배치도를 보면 불전과 법당의 크기가 비슷하고, 세 번째인 천동사의 가람 배치도를 보면 불전의 크기가 전면 5칸, 측면 3칸으로서 법당과 같다. 선원총림이 본연의 목적 외에 국가 수호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데, 이민족(금나라)에게 수도가 함락되는 치욕적인 상황에서 선종사원이라고 해서 초연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남송시기 선종사원에서 불전의 위상은 법당 아래에 있지 않다. 이후 불전은 점점 커져서 법당을 초월하는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백장회해 이후 400년만의 실지회복이었다.



지금의 천동사 법당. 묵조선의 발상지였으며, 굉지정각 선사가 주석했던 곳. 아래층은 법당이고 윗층은 장경각이다.

선종사원 가람 배치 · 구성은 선정신 투영한 파격

수행자를 가르치는데 불전은 필요가 없었던 것

송대에 이르러 선종의 원칙 흐려져

불전 두지 않고 오직 법당만 세우다

북송(北宋)과 남송의 5산10찰

960년 송나라 건국 이후 1100년대까지 태평성대를 맞이한다. 장기간에 걸친 태평성대는 관료들의 부패와 군사력, 전투력을 약화시켜 여진족(후에 금나라)의 침입에 속수무책이 된다. 장기간 금나라에게 시달리던 송나라는 밀리고 밀리다가 급기야는 1126년 수도 개봉이 함락되면서 왕족과 대신 3천명이 포로가 되어 만주로 이송되었다.

이 치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송은 수도를 개봉에서 임안 지금의 항주로 옮겨서 국가재건을 도모한다. 송나라의 수도를 임안으로 옮기기 이전(960-1126)을 '북송'이라고 하고, 옮긴 이후(1127-1279)를 '남송'이라고 한다. 북송과 남송을 통칭 송(宋)이라 하며,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성을 따서 '조송(趙宋)'이라고도 한다.

남송의 5산10찰 제도는 관사제도(官寺制度)로서 황제가 주지를 임명했다. 5대 본산 밑에 10찰을 두고 10찰 밑에 갑찰(甲刹)을 두어 전국 사찰을 관장하게 했는데, 그 의도는 선종사원을 부흥시켜서 국가의 위상을 회복시켜 보려고 한 것이었다. 따라서 선종사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역사상 가장 융성했다. 한편 이것은 선종과 왕권이 손을 잡은 한 단면이기도 하다.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